

기획예산처, 박홍근 장관도 함께 배우는 AI 역량 강화 교육 실시

- 초급, 중급 과정(바이브코딩) 등 기획예산처 맞춤형 실습 교육 진행
- 박홍근 장관, 직원과 함께 AI 교육에 직접 참석, 직원들의 AI 활용률 자체 개발을 상시 지원하기 위한 방안 검토 지시

□ 기획예산처(장관 박홍근)는 기획처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단계별·분야별 AI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기획처내 AI 이해 및 활용도에 있어 직원간 편차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AI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- AI 초급과정은 ‘당장 써먹는 AI비서’라는 주제 하에 ①프롬프트·보안 및 기획처 맞춤형 실습, ②AI를 활용한 시각화 자료 및 PPT·카드뉴스 제작, ③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(Excel + AI)로 3차례 과정으로 구성되며, 각 과정 별로 교육과정(2~3시간)으로 운영한다.

- AI 중급과정은 AI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, 바이브코딩 기반하에 AI Agent 개발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며, 16시간(2일) 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.

< 기획처 AI 역량강화 교육 개요 >

구분	일시	주요 교육내용
초급	①프롬프트 5.11.(월) 14:00~16:00	- 예산/통계 분석 및 시각화 - 정부 발표 자료용 이미지 생성
	②PPT 5.13.(수) 13:00~16:00	- 보고서·발표자료용 도식화 이미지 생성 - 문서용 아이콘·픽토그램·3D 일러스트 제작
	③Excel 5.26.(화) 14:00~17:00	- 엑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- 엑셀 업무 자동화
중급	5.8.(금)+ 5.15.(금) 09:00~18:00	- 파이썬 및 Streamlit 기반 AI Agent 구조 이해 - 실제 데이터 기반 AI Agent* 구축 * 데이터 수집 등 자기주도적 작업 수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

- 특히 금일 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진 **AI 초급과정 1회차 강의**는 **박홍근 장관**과 기획처 **차관 및 모든 간부**, 교육을 희망한 **직원 등 30여명**이 **참석**하였으며, AI를 직접 활용하여 요약자료 추출, 이미지 생성 등을 실습하였다.

<5.11일 기획처 AI 역량강화교육 개요>

- (강사)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 리드 메인테이너 박정환
- (주요내용) '당장 써먹는 AI비서'
 - 프롬프트, 보안,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설명
 - 기획예산처 맞춤형 실습(예산통계 분석 및 시각화, 정부 발표 자료용 이미지 생성 등)

- AI 교육을 수료한 후, 박홍근 장관은 “AI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, 기획처의 업무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”라며, "모든 직원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 혁신을 이루자"고 참석한 간부진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.
 - 특히, 교육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**AI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·상용화 할 수 있도록**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. 또한, AI 기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AI 리터러시 내재화를 위해 **월 1회 현장 전문가** 등과 함께하는 **브라운백미팅** 실시를 제안하였다.
- 한편, 지난 4월 30일부터 기획처는 정부부처 최초로 ‘**AI 기반 정부 전용 모바일 메신저**’를 도입,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였고,
 - 뿐만 아니라, **예산업무 전용 LLM**을 도입하여 예산편성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 업무를 밀착 지원하는 ‘**AI 예산 어시스턴트**’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기획예산처는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하에서 근본적인 조직 혁신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AI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·추진하고 **선도부처로서의 부단한 노력**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 장	김혜영 (044-214-1430)
	혁신행정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정선아 (tjsdk6603@korea.kr)